행복한 책 읽기

장정희 '슬로시티를 가다' 〈Human & Books 刊〉

내 다이어리 갈피에는 며칠 전에 받은 엽서 한 장이 꽂혀 있다. 낮은 돌담길 너머로 노랗게 펼쳐진 유채꽃밭과 드라마 '봄의 왈츠' 오픈 세트장인 바닷가 언덕 위의 하얀 집이 있는 그림엽서다. 한 귀퉁이에 보일 듯 말 듯 희미하게 '슬로시티 청산도 서편제길'이라고 쓰여 있는 엽서는 슬로시티 청산도에 놀러갔던 여동생이 1년 전에 보낸 것이다.

"큰언니, 청산도 범바위 전망대야! 느림 우체통이 있네! 1년 뒤 도착한다고 해."

어디선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었다가 나에게로 온 엽서는 급한 성질 때문에 늘 조급해 하는 나에게 느림의 미학을 가르쳐준다.

슬로시티(Slow City)는 '유유자적한 도시, 풍요로운 마을'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치타슬로

늘 틈 같은 휴식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슬로시티의 속살을 제대로 보려거든 최대한 느린 걸음으로 사물 하나하나에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여 볼일이다. 그러면 새순이 돋는 소리, 보리 이삭이 가만가만 바람에 일렁이는 소리 등 자연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초분, 구들장 논 같은 옛사람들의 지혜와 고된 삶이 스며있는 전통과도 만나게 될 것이다.

책임여행이라는 것이 있다. 이

느림과 여유의 미학

(Cittaslow)의 영어식 표현으로, 이탈리아의 소도시 그레베 인 키안티(Greve in Chiantti)의 시장이었던 파울로 사투르니니가 마을 주민들에게 '느리게 살자!'고 호소한 데서 시작된 전 지구적 운동이다.

'나는 가끔 내 몸이 빠르게 돌아가는 러닝머신 위에 놓여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문명화된 일상의 속도는 러닝머신처럼 핑핑 돌아가는데, 내 몸과 정신의 생체 속도로는 점점 따라잡기가 힘들어진다.'고 말한 저자는 경쟁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입시 현장에 있는 교사다.

매번 허덕거리다가 뒤처지고, 뒤처지다가 고꾸라질 것만 같은 위태로움을 느낀다는 저자는 이 책에 느리게 걷기, 꿈꾸기, 명상하기 등 숨 가쁜 일상에 주는 바

나정이

1998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자

는 여행객이 여행하는 곳의 환경과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책임여행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현지인을 무시하지 않는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간혹 자신들이 돈을 내고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생활쯤이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슬로시티의 목적은 관광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우리가 슬로시티를 찾는 것은 느림이 주는 행복 찾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존재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계획과 질서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보낸 3월이 그 끝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말 슬로시티를 찾아가서 느림이 주는 행복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보는 것은 어떨지. 만약에 느림 우체통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 혹은 1년 후의 자신에게 편지 한 장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봄을 여는 길목… 당신의 클래식 감성을 초대합니다

日 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광주일보사 '페스티벌' 두번째

4월3일 '한일 젊은 음악가 교류 연주회'… 전석 초대

김원호·쿠리타 아사코·사야카 셀리나 함께 무대에

봄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클래식 선율.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소장 고지마 히로유키)와 광주일보사가 공동주최하는 '일본문화페스티벌' 두번째 행사로 '한일 젊은 음악가 교류 연주회 from Switzerland'(이하 젊은 음악가 연주회)가 열린다. 4월3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올해 6회째를 맞는 젊은 음악가 연주회는 고(古)음악의 도시 스위스 바젤로 유학온 한국·일본 유학생을 지원하는 아야메재단(이사장 노가와 히토시)과 일본국제교류기금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4회 행사까지는 서울에서만 연주회가 열렸고, 지난해 처음으로 지방 공연을 개최, 대구에서 연주회를 가졌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원호, 피아니스트 쿠리타 아사코, 첼리스트 사야카 세리나씨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서울 출신으로 9세 때 독일 뮌스터대학 장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했던 김씨는 2008년부터 스위스에 거주하며 취리히 음악원에서 공부했다. 스위스 바젤음악원을 졸업했으며 지난해에는 독일 뮌헨 구루라도바후시 문화예술상을 수상했다.

1991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난 첼리스트 사야카 세리나는 현재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음악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 음악대학 연주과정을 거쳐 바젤음악원 음악교육과에서 수학한 피아니스트 쿠리타 아사코는 현재 바젤을 중심으로 활동중이다.

세 사람은 한국 공연에 앞서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일본 도쿄, 이츠카, 고베, 타데바야시, 토야마 등 일본 현지에서 연주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광주 공연 후에는 서울 금호아트홀(4월5일)에서도 공연을 갖는다.

연주회 레퍼토리는 드뷔시의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트리오 G장조', 스메타나의 '피아노 트리오 G단조 작품 15', 브람스의 '피아노 트리오 1번 작품 9'이다.

이번 연주회는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이 특별협력으로 참여하며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주한스위스대사관 등이 후원한다.

한편 '일본 문화 페스티벌' 행사로 현재 롯데갤러리에서 진행중인 그래픽 디자이너 나가이 가즈마사전은 다음달 10일까지 계속된다. 나가이 가즈마사는 삿포로 동계올림픽 심볼 등을 제작한 일본 대표 디자이너로 그의 작품은 뉴욕현대미술관, 스위스 로잔 미술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SAVE 시리즈' 등 모두 80여점을 만날 수 있다.

또 '7인의 사무라이', '라생문' 등을 만든 세계 영화계의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는 영화제가 7월중 광주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주회 티켓은 유·스퀘어문화관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문의 062-360-84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왼쪽부터 김원호·쿠리타 아사코·사야카 세리나씨.

현대인 삶에 녹색의식을

화순 소아르 갤러리 5월10일까지 'green art' 전

소아르 갤러리는 오는 5월10일까지 4명의 작가를 초대해 'green art' 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지구와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예술작품을 소개하며 편의주의와 개인주의로 만연한 현대인의 삶에 녹색의식을 던지는 아트 캠페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수리 작가는 로드 킬, 기형으로 태어난 짐승, 폭발 등의 이미지를 통해 폭력으로부터 무뎌져 가는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엄기준 작가는 바다를 주제로 환경에 대한 뚜렷한 주제 의식을 던지는 회화작품을 선보이며 바다를 보호하는 것이 인류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시킨다.

이세현 작가는 사진 콜라주 방식의 작품으로 무분별한 산업화를 경고하고 정찬부 작가는 각양각색의 빨대를 이용한 조형작품으로 파괴돼가고 있는 자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문의 061-371-8585.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엄기준 작 'Korean Gray Whale'

"리모델링·콘텐츠 선정 폭 넓은 의견수렴을"

광주전남작가회의 '빛고을문학관' 부지관련 성명서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조진태, 이하 작가회의)는 26일 '빛고을 문학관' 건립 부지로 광주시 동구 명성예식장을 선정한 것과 관련, 향후 리모델링과 콘텐츠 선정 과정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작가회의 참여를 주장했다.

조진태 작가회의 회장은 "광주의 정신가치를 문학적으로 승화한 문학콘텐츠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의 도시라는 자부심과 문화적 품격을 담아낼 수 있는 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가회의는 이에 앞서 지난 25일 발표한 빛고을문학관 부지 선정과 관련한 성명서에서 "'빛고을 문학관' 성격에 적합한 공공용지를 선정해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성격이 모호한 사유지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 점과 응모 자격을 광주 동구로 제한한 것은 협애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작가회의는 또 "건립추진위가 부지 선정 심사까지 도맡은 것은 절차나 의사 결정에 있어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라며 "객관성을 위해 추진위는 공정한 진행만을 관장하고 부지 결정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심의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프랑스 작곡가의 음악이 흐른다

4월1일 최지혜 플루트 독주회

플루트로 만나는 프랑스 작곡가들의 음악.

최지혜 플루트 독주회가 오는 4월 1일 오후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최씨는 이번 독주회 레퍼토리를 프랑스 작곡가의 곡들로만 꾸몄다. 플루트 음악은 프랑스에서 크게 발전했다. 파리고등국립음악원이 생기면서 학생들을 위한 곡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좋은 연주자도 많이 등장했다.

연주회 레퍼토리는 '근대 프랑스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포레의 '환상곡', 메시앙의 '검은 새',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을 모티브로 보네가 작곡한 '카르멘 판타지', 보짜의 '플루트 솔로를 위한 이미지', 삐에르네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36'이다.

이화여대와 인디애나 주립대학 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최씨는 광주시향, 서울윈드앙상블 등과 협연했으며 현재 목포대, 광주대 등에 출강중이다. 피아노 반주는 반수진씨가 맡는다. 문의 070-8654-31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